

한국과 몽골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비교

박재경 · 남윤자* · 김언주** · 정선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몽골국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A Comparison of Satisfaction for Actual Body and Perceived Body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Female College Students

JaeKyung Park · Yunja Nam* · Yeonju Kim** · Sunyoung Je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Mongol Inter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8월 5일), 수정일(2010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2010년 9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body sizes of Korean and Mongolian female college students, their perceptions about body size, and body satisfaction based on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The subjects consisted of 164 Korean students and 171 Mongolian students from March to April, 2008. The age range was 17 to 22 years. We directly measured the body sizes of subjects and examined by questionnaire the degree of body cathexis, perceived body size, and ideal body size. Both Korean and Mongolian college students have similar body measurements but Korean college students have smaller heads, broader and sloped shoulders, and thinner arms and legs. There were in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body size for both groups; in particular they perceived that their lower body is fat or thick.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body satisfaction. Both groups had the lowest satisfaction rate for their lower bodies; but in all items, Korean college students had a lower body satisfaction rate than Mongolian college students even though they have thinner arms and legs. Finally, the ideal body style for both groups was a skinny body type, but Korean students preferred a much thinner body type. The body satisfaction rate is greatly affected by the ideal body than the actual body.

Key word: Satisfaction for body, Perceived body, Ideal body, Korean and Mongolian female college students; 신체만족도, 인지체형, 이상체형, 한국 · 몽골 여자 대학생

I. 서 론

한국의 20대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

의 신체에 많은 관심을 갖으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낮은 편이다(구양숙, 추태귀, 1996; 남윤자, 이승희, 2001; 박우미, 2000; 박재경 외, 2004).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체형이 사회적 이상체형과 차이가 많을수록 커지며,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신체이미지는 영향을 받는다(Davis, 1985).

†Corresponding author

E-mail: sun-y201@hanmail.net

본 논문은 2010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581)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따라서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 사회의 이상체형에 차이가 있고, 또 이러한 이상체형이나 사회적 성향에 따라 스스로가 인지하는 체형이나 신체만족도 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윤자, 이승희(2001)와 박우미(2000)에 따르면 실제 신체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작고, 가는 체형이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 모두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형으로 하고 있었으나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자신의 신체를 굵게 인식하여, 신체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 반면 일본 여대생과는 실제체형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상체형이나 신체만족도에서도 유사성이 크게 나타나(박재경 외, 2004) 문화적 유사성과 신체만족도의 관련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는 서구적인 체형을 이상형으로 하는 동양과 서양의 인종적·문화적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비교 대상이 세 국가로 한정되어 그 해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비교를 통해 그 결과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자연환경은 차이가 있으나 인종적인 배경에서는 유사점을 갖는 한국과 몽골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이상체형과의 관련 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16~28세의 여대생으로서 2008년 3~4월에 인체측정과 설문조사를 한국과 몽골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으며, 평균 연령은 한국 여대생이 20.2±2.0세, 몽골 여대생이 19.0±1.8세였다. 한국의 연령 분포는 18~22세가 89%를 차지하였는데 비해 몽골은 17~22세가 94.7%로 젊은 연령의 분포가 더 많았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164명, 몽골 17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방법

실제체형은 직접측정으로 측정된 신체부위별 측정치에 의한 체형을 의미하며, 피험자들에 대한 인체측정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인지체형은 설문을 통해 5점 척도(1=작다/가늘다, 5=크다/굵다)로 측정하였으며, 피험자들의 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체형을 의미한다. 신체만족도는 설문을 통해 5점 척도(1=매우불만, 5=매우만족)로 신체부위별 만족도를 측정하여 파악하였다.

인체측정항목은 <표 2>와 같으며 신체크기인식 측정도구의 항목 중 목길이, 목굵기와 관련된 항목을 제

<표 1>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

연령(세)	한국			몽골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16	0	0.0	0.0	3	1.8	1.8
17	1	0.6	0.6	19	11.1	12.9
18	32	19.5	20.1	58	33.9	46.8
19	31	18.9	39.0	41	24.0	70.8
20	43	26.2	65.2	19	11.1	81.9
21	26	15.9	81.1	15	8.8	90.6
22	14	8.5	89.6	10	5.8	96.5
23	6	3.7	93.3	3	1.8	98.2
24	8	4.9	98.2	1	0.6	98.8
25	1	0.6	98.8	1	0.6	99.4
27	1	0.6	99.4	0.0	0.0	99.4
28	1	0.6	100.0	1	0.6	100.0
계	164	100.0		171	100.0	

외한 나머지 부위와 대응되는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다리길이는 계산식 “(엉덩뼈가시점높이-무릎높이) \times 0.93+무릎높이”를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인체측정항목은 18항목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4)을 기준으로 직접계측하였다.

설문지는 박재경 외(2004)의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신체에 대한 부위별 크기인식,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상치(理想值)의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크기인식과 신체만족도 측정항목은 다양한 부위에 대한 길이와 둘레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각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신체이상치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5항목에 대하여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는 SPSS/WIN 10.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인체측정치, 체형인식, 신체만족도, 신체이상치 등에 대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

검정을 통해 한국과 몽골 여대생을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인체측정치에 의한 실제체형 비교

인체를 직접측정하여 얻어진 실제체형의 각 부위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두 집단의 인체측정치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는 키, 몸무게,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길이항목 중 머리수직길이, 팔길이, 엉덩이옆길이 등에서 몽골 여대생이 유의하게 컸고, 어깨가쪽사이길이, 등길이 등에서 한국 여대생이 유의하게 컸다. 또한 어깨경사와 두신지수는 한국 여대생이 유의하게 컸으며 둘레항목에서는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종아리최소둘레 등의 사지부위에서에서 몽골 여대생이 유의하게 컸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 여대생은 전체적인 체형은 유사

<표 2> 인체측정치에 의한 실제체형 비교

(단위: cm)

신체부위	한국(n=164)		몽골(n=171)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1.3	5.6	160.3	5.5	1.678
머리수직길이	21.2	1.0	21.8	1.1	-5.810***
어깨가쪽사이길이	39.7	2.2	38.0	2.4	6.630***
어깨경사(°)	21.8	3.6	20.2	4.6	3.592***
젖가슴둘레	84.9	5.3	84.6	5.0	0.547
허리둘레	68.2	5.6	68.0	5.2	0.252
배둘레	77.4	7.0	78.6	6.1	-1.607
엉덩이둘레	94.2	5.2	93.3	4.8	1.638
위팔둘레	26.3	2.6	26.9	2.5	-2.452**
아래팔둘레	22.1	1.7	23.6	1.7	-8.256***
손목둘레	14.6	1.1	15.6	1.6	-6.837***
넓다리둘레	53.1	4.9	54.5	3.9	-2.858**
장딴지둘레	35.1	2.7	35.4	2.1	-1.279
종아리최소둘레	20.9	1.6	21.8	1.5	-5.769***
등길이	37.5	1.8	36.7	2.3	3.876***
팔길이	54.3	2.6	58.6	3.6	-12.431***
엉덩이옆길이	22.0	2.4	23.1	2.1	-4.602***
다리길이	86.2	4.5	86.3	4.5	-0.215
몸무게(kg)	53.4	7.1	53.8	6.5	-0.421

** $p < .01$, *** $p < .001$

하나 세부적인 체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머리는 작고, 어깨는 넓고 처졌으며, 등길이는 길고, 사지는 가늘고 짧았다.

두 집단의 신체비례를 비교하기 위해 키와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지수치와 두신지수,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등을 계산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지수치 비교 결과, 키를 기준으로 한 지수치는 인체측정치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던 머리수직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종아리최소둘레, 위팔둘레, 등길이, 팔길이, 엉덩이옆길이는 물론, 인체측정치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배둘레와 장딴지둘레, 다리길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수치 비교 결과 배둘레, 장딴지둘레는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보다 가늘고, 다리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두신지수는 한국의 값이 몽골에 비해 유의

하게 크고, 둘레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치(젓가슴둘레/허리둘레, 엉덩이둘레/허리둘레)와 BMI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머리는 작고, 어깨는 넓으며, 등길이는 길고, 사지가 짧고 가는 특징을 보였으며, 배부분은 더 날씬하였다.

2.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의 비교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크기인식의 평균 및 t-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은 한국은 2.51~3.99, 몽골은 2.04~3.30의 분포를 보여, 한국 여대생이 인체에 대해 더 크고, 굵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키, 다리길이, 가슴, 유방크기, 손목굵기 등의 항목에서 작거나 가늘다고 인식한 반면, 넓적다리굵기, 엉덩이크기, 장딴지굵기, 하반신비만도 등에서는 점수가 높아 주로 하반신에 대하여 굵거나 뚱뚱하다고

<표 3> 실제체형의 지수치 비교

신체부위	한 국(n=164)		몽 골(n=171)		t 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머리수직길이/키	0.131	0.007	0.136	0.007	-6.553***
어깨가쪽사이길이/키	0.246	0.013	0.237	0.016	5.564***
젓가슴둘레/키	0.527	0.034	0.528	0.032	-0.392
허리둘레/키	0.423	0.034	0.425	0.034	-0.509
배둘레/키	0.480	0.044	0.491	0.038	-2.267*
엉덩이둘레/키	0.585	0.032	0.583	0.029	0.562
위팔둘레/키	0.163	0.017	0.168	0.016	-3.002**
아래팔둘레/키	0.137	0.010	0.147	0.012	-8.869***
손목둘레/키	0.091	0.007	0.098	0.010	-7.345***
넓다리둘레/키	0.329	0.031	0.340	0.025	-3.523***
장딴지둘레/키	0.218	0.017	0.221	0.014	-2.138*
종아리최소둘레/키	0.129	0.010	0.136	0.010	-6.342***
등길이/키	0.233	0.009	0.229	0.014	3.040**
팔길이/키	0.337	0.012	0.366	0.019	-16.548***
엉덩이옆길이/키	0.136	0.014	0.144	0.013	-5.568***
다리길이/키	0.534	0.017	0.538	0.016	-2.174*
젓가슴둘레/허리둘레	1.248	0.055	1.246	0.057	0.319
엉덩이둘레/허리둘레	1.387	0.073	1.376	0.073	1.309
두신지수	7.639	0.387	7.359	0.392	6.565***
BMI	20.527	2.424	20.927	2.255	-1.565

*p<.05, **p<.01, ***p<.001

<표 4>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 비교

신체부위	한국(n=164)		몽골(n=171)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2.68	1.17	2.77	0.92	-0.826
머리크기	3.28	0.94	3.09	0.50	2.327*
목길이	2.83	0.88	2.91	0.61	-1.001
목굵기	2.94	0.79	2.96	0.61	-0.335
어깨너비	3.13	1.01	3.05	0.61	0.951
어깨각도	2.79	0.74	3.20	0.84	-4.761***
가슴둘레	2.79	1.06	2.97	0.81	-1.789
유방크기	2.51	1.09	2.68	0.84	-1.619
허리둘레	3.16	1.01	3.24	0.96	-0.752
배둘레	2.80	1.00	2.04	0.82	7.543***
영덩이둘레	3.65	1.00	3.06	0.75	5.994***
위팔굵기	3.51	1.09	3.00	0.96	4.552***
아래팔굵기	2.88	1.02	2.86	0.86	0.237
손목굵기	2.58	1.06	2.63	0.89	-0.490
넙다리굵기	3.99	0.94	3.30	0.94	6.765**
종아리굵기	3.57	1.00	3.20	0.97	3.418***
발목굵기	2.98	1.07	2.80	0.72	1.800
등길이	3.15	0.65	2.89	0.67	3.565***
팔길이	3.20	0.95	3.11	0.64	1.081
영덩이위치	2.83	0.72	2.96	0.53	-1.951
다리길이	2.67	0.95	2.82	0.86	-1.552
몸무게	3.46	0.95	3.09	0.95	3.558***
전신비만도	3.24	0.85	3.14	0.97	0.981
상체비만도	3.11	0.98	3.02	0.81	0.874
하체비만도	3.60	0.99	3.30	0.90	2.949**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3.99)과 몽골(3.30) 모두 넙적다리굵기의 값이 가장 컸다.

한국과 몽골 여대생의 인지체형은 머리크기, 어깨각도, 배둘레, 영덩이둘레, 위팔굵기, 넙다리굵기, 장딴지굵기, 등길이, 몸무게, 하체비만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머리크기, 배둘레, 영덩이둘레, 위팔굵기, 넙다리굵기, 장딴지굵기, 등길이, 몸무게, 하체비만도 등에서 더 크고 더 길게 그리고 더 굵게 인식하였으며, 어깨각도는 더 작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실제체형에서 한국 여대생이 사지의 굵기가 더 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보면 한국 여대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굵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상하체 비례와 관련한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의 실제 등길이가 몽골 여대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체형에서도 한국 여대생이 유의하게 길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리길이는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보다 지수치에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체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신체부위별 만족도의 비교

1) 신체부위별 만족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및 t-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체만족도는 한국은 1.87~3.25, 몽골은 2.82~3.58에

<표 5> 신체부위별 신체만족도의 비교

신체부위	한국(n=164)		몽골(n=171)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2.54	1.20	3.06	1.24	-3.920***
머리크기	2.43	1.16	3.46	1.09	-8.360***
목길이	2.90	1.06	3.53	0.97	-5.677***
목굵기	3.11	1.07	3.55	0.98	-3.913***
어깨너비	2.74	1.07	3.49	1.10	-6.253***
어깨각도	2.90	0.99	3.54	1.04	-5.790***
가슴둘레	2.48	1.06	3.36	1.04	-7.683***
유방크기	2.38	1.13	3.32	1.15	-7.486***
허리둘레	2.45	1.10	2.99	1.18	-4.403***
배둘레	1.99	0.98	2.82	1.15	-7.152***
엉덩이둘레	2.14	1.04	3.32	1.13	-9.879***
위팔굵기	2.22	1.07	3.37	1.01	-10.159***
아래팔굵기	2.86	1.04	3.51	0.99	-5.855***
손목굵기	3.25	1.06	3.58	0.97	-3.021**
넙다리굵기	1.87	1.12	2.90	1.16	-8.289***
종아리굵기	2.13	1.18	2.96	1.15	-6.547***
발목굵기	2.82	1.16	3.42	1.02	-5.079***
등길이	2.87	0.86	3.43	1.07	-5.286***
팔길이	3.23	1.05	3.58	1.00	-3.196**
엉덩이위치	2.50	1.01	3.43	0.98	-8.534***
다리길이	2.35	1.15	3.22	1.18	-6.863***
몸무게	1.98	0.97	3.01	1.21	-8.647***
전신비만도	2.23	1.02	3.33	1.13	-9.425***
상체비만도	2.24	0.97	3.33	1.10	-9.536***
하체비만도	1.93	1.03	3.18	1.19	-10.319***

** $p \leq .01$, *** $p \leq .001$

분포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한국 여대생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만족도 점수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은 넙다리굵기(1.87), 배둘레(1.99), 몸무게(1.98), 하체비만도(1.93)의 순이며, 몽골 여대생은 배둘레(2.82), 넙다리굵기(2.90), 장딴지굵기(2.96), 허리둘레(2.99) 순으로 대부분 하체의 굵기와 비만에 관련된 항목에서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한국 여대생이 유의하게 불만족하였는데, 실제체형에서 한국 여대생이 사지의 굵기가 더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체형에서 10항목에서만 유의차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보

면 자신의 신체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한국과 몽골 여대생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더 가늘고 마른 체형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실제체형 및 인지체형 간의 상관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와 이에 대응되는 실제체형, 인지체형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머리크기를 제외한 키, 목길이, 팔길이, 엉덩이위치, 다리길이 등의 길이항목에서는 만족도와 인지체형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나 대부분의 길이항목에서는 크거나 길수록 만족하나 머리크기는 작을수록 만족하였다.

<표 6>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인지체형 및 실제체형과의 상관

신체부위	한 국		몽 골		대용신체측정항목
	인지체형과의 상관	실제체형과의 상관	인지체형과의 상관	실제체형과의 상관	
키	0.607***	0.537***	0.477***	0.394***	키
머리크기	-0.636***	-0.243**	-0.151*	-0.129	머리수직길이
목길이	0.581***	-	0.229**	-	-
목굵기	-0.600***	-	-0.173*	-	-
어깨너비	-0.428***	-0.148	0.245**	-0.051	어깨가쪽사이길이
어깨각도	0.275***	-0.184*	0.323***	0.033	어깨경사
가슴둘레	0.400***	0.184*	0.132	0.026	젓가슴둘레
유방크기	0.544***	0.122	0.339***	0.076	젓가슴둘레와 젓가슴아래둘레의 차
허리둘레	-0.708***	-0.511***	-0.475***	-0.349***	허리둘레
배둘레	-0.646***	-0.472***	-0.459***	-0.294***	배둘레
엉덩이둘레	-0.375***	-0.426***	0.142	-0.057	엉덩이둘레
위팔굵기	-0.701***	-0.527***	-0.255**	-0.244**	위팔둘레
아래팔굵기	-0.673***	-0.367***	-0.137	-0.188*	아래팔둘레
손목굵기	-0.673***	-0.332***	-0.282***	-0.097	손목둘레
넙다리굵기	-0.720***	-0.369***	-0.420**	-0.334***	넙다리둘레
종아리굵기	-0.730***	-0.361***	-0.483***	-0.339***	장딴지둘레
발목굵기	-0.715***	-0.215**	-0.133	-0.075	종아리최소둘레
등길이	-0.162*	0.030	0.302***	0.043	등길이
팔길이	0.508***	0.196*	0.241**	0.073	팔길이
엉덩이위치	0.439***	-0.092	0.289***	-0.028	엉덩이옆길이
다리길이	0.715***	0.474***	0.540***	0.372***	다리길이
몸무게	-0.613***	-0.500***	-0.474***	-0.308***	몸무게
전신비만도	-0.464***	-0.376***	-0.324***	-0.288***	BMI
상체비만도	-0.400***	-	-0.259**	-	-
하체비만도	-0.597***	-	-0.330***	-	-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또한 등길이에서는 한국이 -0.162, 몽골이 0.302이고, 어깨너비에서는 한국이 -0.428, 몽골이 0.245로 나타나 한국은 등길이가 어깨너비 치수가 작을수록, 몽골은 클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와 실제체형 간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거나 인지체형과의 상관보다 낮았다.

가슴둘레와 유방크기를 제외한 모든 굵기나 비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만족도와 부적상관이 나타나 굵기와 비만항목에서는 가늘고, 마른 것에 만족하나 가슴둘레와 유방크기는 클수록 만족하였다. 그러나 가슴둘레에서 몽골의 상관계수가 한국에 비해 매우 낮고, 실제 가슴둘레 치수와의 상관도 0.026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몽골 여대생이 가슴크기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1.2%로 거의 없고, 큰 것과 작은 것, 모두에 불만족하기 때문으로 한국 여대생(0.400)이 클수록 만족하는 경향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박재경 외(2004)에 따르면 한국의 여대생이 가슴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모두에 불만족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유행과 이상체형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만족도와 인지체형 간의 상관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상관도를 나타낸 반면 몽골은 가슴둘레, 엉덩이둘레와 같이 중요 신체항목을 포함

하는 많은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한국 여대생의 경우 종아리 굵기(-0.730), 넓다리 굵기(-0.720), 발목 굵기, 다리 길이(0.715)와 같이 0.7 이상의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지만 몽골은 다리 길이(0.540)만 0.5를 넘는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몽골의 여대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신체만족도는 높기 때문으로, 한국 여대생보다 만족하는 체형에 대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하겠다.

한편 만족도와 실제체형과의 상관성은 모든 부위에서 인지체형과 만족도 간의 상관보다 작거나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신체 이상치의 비교

신체부위별 이상치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한국과 몽골 여대생의 신체적 이상치를 비교한 결과, 키, 몸무게, 젖가슴둘레에서 한국 여대생의 이상치가 몽골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작았으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MI는 응답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키와 몸무게의 치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한국이 17.501, 몽골이 18.307로 유의차가 인지되었다. BMI에서 19 미만을 수척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두 집단 모두 마른형을 이상형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이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체형에서는 위의 항목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대생의 신체만족도가 낮았던 것은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

생보다 마른 체형을 이상체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여대생을 대상으로 인체측정과 함께 신체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두 나라 간의 실제체형에 기반을 둔 인지체형과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이상체형과의 관련도 고찰하였다.

실제체형의 경우 한국과 몽골 여대생은 키, 몸무게,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전체적인 체형은 유사하나 세부적인 체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인 체형은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머리는 작고, 어깨는 넓고, 처졌으며, 등길이는 길고 사지가 짧고 가는 특징이 있었다.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은 두 집단 모두 하체에 대해 굵거나 뚱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실제체형에서는 더 가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둘레나 비만항목에서 더 굵고 뚱뚱하게 인식을 하였다. 다리길이와 팔길이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등길이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다리길이는 짧게, 팔길이는 보통으로 인식한 반면, 유의차를 보인 등길이는 한국 여대생이 더 길다고 인식하였다.

신체만족도에서도 두 집단 모두 하체의 굵기나 비만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상하체 비례 관련 항목에서도 실제체형에서 한국 여대생보다 다리길이가 길고, 등길이가 짧은 몽골 여대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7> 신체부위별 이상적인 치수 비교

신체부위	한 국			몽 골			t 값
	n	평 균	표준편차	n	평 균	표준편차	
키(cm)	160	167.4	3.1	153	168.5	4.3	-2.618**
몸무게(kg)	162	49.0	3.5	153	51.9	4.4	-6.388***
젖가슴둘레(cm)	145	85.2	4.7	126	87.5	4.6	-4.036***
허리둘레(cm)	144	62.8	4.6	127	62.3	4.5	0.929
엉덩이둘레(cm)	138	88.2	4.8	126	87.8	5.3	0.620
BMI	160	17.5	1.3	153	18.3	1.7	-4.656***

p≤.01, *p≤.001

또한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가 낮은 부위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만족도와 인지체형 간의 상관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상관도를 나타낸 반면 몽골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신체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유의한 상관 나타나지 않은 항목도 많았다.

끝으로 신체적 이상치는 두 집단 모두 마르고 하체가 긴 체형을 이상형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이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한국과 몽골 여대생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체형이며, 팔과 다리는 한국 여대생이 더 짧고 가늘었다. 유사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대생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은 한국 여대생이 몽골 여대생보다 더 마른 체형을 이상체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상체형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를 더 굵게 인식함으로써 신체만족도가 낮았던 것이다. 실제 자신의 인체치수보다 신체에 대한 인식 정도가 신체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대부분 불만족하고 있는 것에 비해 몽골 여대생들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체만족도가 이상체형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한국과 몽골의 두세 개 대학에서 표집된 자료이고 연령 분

포 또한 20대 초반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 적용시키는 데는 제한점을 갖으며, 실제 의복 디자인 개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몽골 여대생의 신체만족도나 이상체형과 관련하여 유행되고 있는 의복과 실제 착용되고 있는 의복스타일의 차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8(6), 758-766.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인체측정표준용어집*. 경기 과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柳澤會子. (1982). *被服體型學*. 東京: 光生堂.
- Davis, L. L. (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 cathexis, and attitude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 61(3), 1199-1205.